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일옥선사 '觀影佛'

선사의 법명은 일옥(一玉), 법호는 진묵(震默)이다. 조선 명종 17년(1562) 전북 김제군 만항면 불거촌(佛居村 : 현 화포리)에서 태어났다.

선사가 태어날 때 불거촌의 풀과 나무가 3년 동안 시들어 사람들은 세상에 드문 인물이 탄생하였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어린 시절부터 마늘이나 파처럼 특이한 냄새가 나는 채소와 비린 음식을 즐기지 않았으며, 마음이 자비롭고 슬기로워 사람들은 불거촌에서 부처님이 나투셨다고 즐거워 했다.

일곱 살에 전주 서방산 봉서사에서 출가한 선사는, 먼저 내전(內典)을 수학하였다. 선사는 경학을 공부할 때 조금도 막힘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한번 눈에 스치면 외워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스승은 가르치지도 않고 선사마저 배우려 하지 않자 자연히 대중 스님들은 선사의 국량(局量)을 헤아리지 못하고 소고 비난했다.

선사가 월명암에 계실 때 밤마다 멀리 동쪽으로부터 한점의 불빛이 비치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불빛은 완주 청량산 목부암의 등불이었다. 선사는 등불이 비치는 뜻을 헤아려 마침내 주석처를 옮기고 암자의 이름을 목부암에서 원등암으로 바꾸었다. 이후 16존자가 선사를 모시고 수행을 하였던 곳이다. 선사께서 하루는 사미승을 데리고 원등암을 떠나 어디를 가다가 도중에 낙수천(樂水川)가에 이르렀다. 사미승이 아뢰기를 "제가 먼저 건너가면서 깊은지 얕은지를 알아 보겠다"고는 앞서서 사뿐사뿐 걸어 강을 건너는 것이었다. 선사께서 사미승의 뒤를 쫓아 물속으로 들어갔으나 의외로 물이 깊어 허우적거리니 사미승이 돌아와 선사를 건져 주면서 놀려댔다.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선사께서는 어찌 그리 허둥대십니까." 선사는 그 제서야 나한에게 이끌려 왔음을 알고서는 크게 깨달았다.

"너는 허망한 모습만 알뿐 부처님의 참모습 모르는구나"

사미(少沙彌)로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주지 스님이 선사로 하여금 신중단의 신중들에게 향불을 올리는 소임을 맡겼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신중들이 꿈에 나타나 "부처로 하여금 우리에게 예경하고 봉향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일이 있은 뒤 산내 대중 스님들은 "비로소 선사의 비범함을 알고서 부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이라고 하였다.

선사가 스승 휴정 선사를 따라 경남 창원 마산포를 지나갈 때의 일이다. 한 6자 아이가 선사를 보고 연모하게 되었다. 이 여자 아이는 세월이 흐른 다음 죽어서 남자로 태어났다. 그 사내 아이는 김제 모악산 대원사에서 선사를 만나 선사의 시동(侍童)이 되어 법명을 기춘(奇春)이라 하였다. 뒤에 선사의 법을 이어 받았다. 선사는 기춘 스님을 총아하여 그와 더불어 세속적 즐거움을 떠난 이락삼매(離樂三昧 : 일체의 세속적 즐거움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남)의 경지에 노닐었다. 그러나 지혜의 눈이 없는 뭇 스님들이 선사의 빛나는 진여(眞如)의 실상(實相)을 알아보지 못하고 관영불(觀影佛 : 깨달음의 화신)

天衾地席山爲枕(천금지석산위침)
月燭雲屛海作樽(월촉운병해작준)
大醉居然仍起舞(대취거연잉기무)
劫嫌長袖掛崑崙(겁혐장수괘곤륜)

하늘을 덮고 산을 베고 땅 위에 누웠다가,
구름 병풍에 달빛을 등불 삼아 바다 술을 마신다.
마음껏 취하여 비틀비틀 춤추려다,
어허! 소매 길어 곤륜산에 걸리겠네.

선사는 한참 낙수천을 바라보고 있다가 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것이 바로 부처님의 그림자로구나." 이에 시자승이 "그것은 선사의 그림자입니다"고 하였다.

선사께서 시자승을 돌아보면서 "너는 다만 나의 허망한 모습만을 알뿐 부처님의 참모습은 모르는 구나"고 지팡이를 메고 조실로 들어가 앉은 채로 입적했다. 인조 11년 (1633) 10월 28일 세수 72세 법랍 52세였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가까이서 뵌 큰스님

고산스님

쌍계사 조실

"세상살이 참선 아닌 것 없어"

고산(孤山)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부산 혜원정사. 일주문을 통과하고 대웅전을 향하는 계단을 올라서면 계단 양옆에 오가는 이의 마음을 붙잡아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물음이 쓰여져 있다. '이 뭣고?'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을 붙잡고 대웅전으로 통하는 계단을 오른다. 그 물음은 고산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시는 요사앞까지 따라붙는다. 이미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버린 물음은 스님을 뵙는 시간 내내 이어져 고요히 나를 바로 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다.

방에 들어가니 고산 스님은 붓으로 '일인장락(一忍長樂)'이라는 글을 쓰고 계셨다. 벌써 여러 장의 글씨가 마르기를 기다리며 펼쳐져 있는 걸로 미루어 붓을 드신 지 오래된 모양이다.

"글을 참 많이 써 놓으셨습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주려고 쓰고 있지."

불교등한 젊은이들 안타까워

늘 대중을 위한 법문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스님께서 틈틈이 시간을 내 글을 쓰시는 마음을 잠시 헤아려 본다.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을 마음으로 이끌고자 함이리라. 대중들을 향한 자비심의 발로인 듯 정성을 다해 몇 장을 더 쓰시고는 붓을 놓으시며 "불교에는 세상을 바르게 사는 지혜가 들어 있으니 남녀노소 모두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말로 말문을 여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교는 나이든 사람이나 보살들만의 종교로 여겨졌어요. '마야반야바라밀'을 큰 지혜로 이 언덕 즉, 생사언덕에서 저 언덕 즉, 생노병사의 윤회가 없는 열반 언덕으로 건너가자고 그 뜻을 새겼거든. 그러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얘기로 잘못 이해를 해버리는 게야. 생노병사가 없는 열반 언덕에 간다고 하니 죽은 후의 불교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지.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불교를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불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교는 노보살들이나 믿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같은 예가 허다해. 그러니 불교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할 일이지."

스님은 불교가 '지금 현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며 말씀을 이어가신다.

"글자의 뜻만 알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참뜻을 새겨 알아야 해. 마야반야바라밀의 뜻 가운데 '이 언덕과 저 언덕'의 뜻을 생활 속에서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짓는 것이 이 언덕이요, 가을에 추수하는 것은 저 언덕이며, 학생은 공부할 때가 이 언덕이요, 졸업장을 탈 때가 저 언덕에 건너간 것이지.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열심히 할 때가 이 언덕이요, 장사로 돈을 벌었을 때는 저 언덕에 건너간 것입니다. 또한 수행자는 수행할 때 이 언덕이요, 성불한 때는 저 언덕임을 알아야 하거든. 그러니 학생, 농부, 정치인 할 것 없이 지혜가 있어야 저 언덕으로 건너 갈 수가 있는 것이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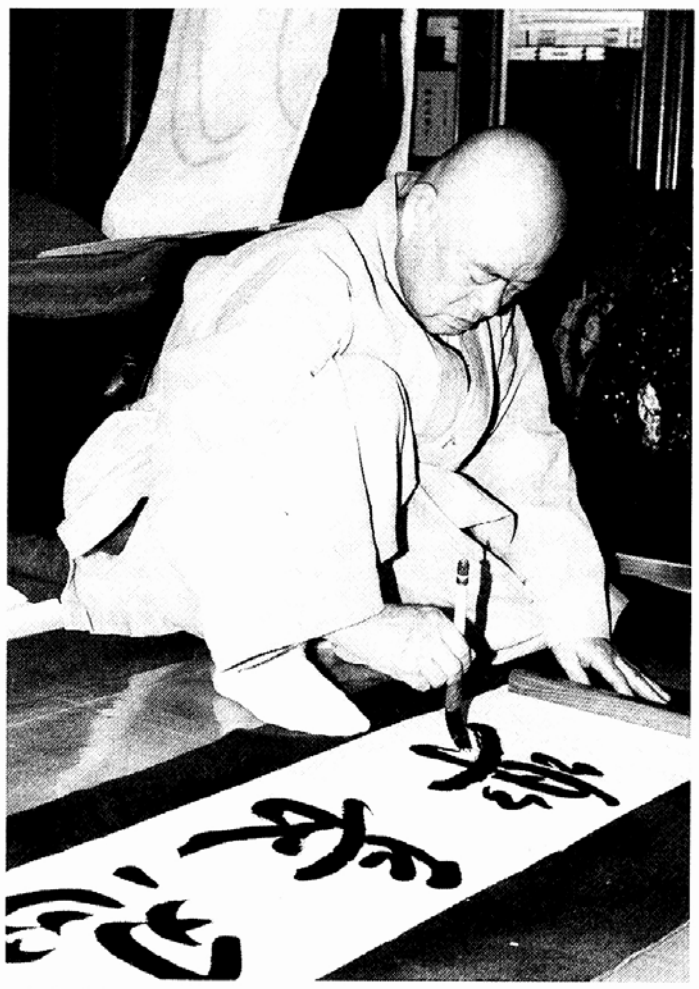
스님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해부족으로 불교를 등한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신다. 불교가 결코 어렵거나, 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로도 스님의 일과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스님은 "팔만대장경이 양도 많고 방대해서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팔만대장경의 요지는 너나 없이 모두가 잘 살고 잘 먹자는 것이고 필

> "열번이상 생각한 말이나 행동에는 실수가 없어요"

경에는 부처가 되자는 것이 골수 법문이예요"라면서 함께 잘 사는 길을 위해서는 남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자고 하신다.

"요즘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또 나이를 불문하고 말이나 행동을 불쑥불쑥 해버려. 그러고는 나중에 가서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그러거든. 행동이나 말, 또는 마음을 일으킬 때 열 번 이상 생각해서 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열번 이상 생각한 말이나 행동에는 실수가 없어. 그러니 자연히 용서를 빌 일은 줄어들게 되고 세상은 절로 평화롭게 되는 것이야."

고산 스님은 종단이 화평하지 못한 어려운 시절에 총무원장을 지낸 적이 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 자리를 떠났다. 그것을 두고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수도를 하려면 같은 곳에 석달 이상 머물지 말라 했는데 1년이나 했으면 오래 했지"하신다.



◇붓글씨를 쓰고있는 고산스님. 대중을 위한 법문으로 늘 바쁜 스님은 틈틈이 시간을 내 마음의 거울이 될 법구를 써서 주위사람들에 나눠주신다.

"무엇이든 착이 붙으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했거든. 물론 일각에선 종단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좀더 마무리했으면 좋지 않느냐 할지도 모르지만 나 아니라도 훌륭한 분들이 맡아 잘 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있었던 거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없애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도와주려고 생각한다면 나라, 사회, 가정 모두가 원만하게 돌아가요. 부인, 남편, 자녀들 모두가 서로 잘났다고 싸우면 집안이 편하지 않을 것은 세 살 먹은 아이도 아는 거잖아. 아상을 버리라는 말을 밥먹듯이 듣잖아요. 그 말을 어렵게 생각 말고 내가 잘났다는 생각, 뭐든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말로 새기면 됩니다. 세상 모든 것에서 자기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들에 빠져 있는데 실상은 나 아니라도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스님은 처음 머리 깎고 출가한 이들이 강원에서 기본적인 교학을 마친 후에 자기 기능에 따라서 포교를 하든지, 선방으로 가든지, 율을 익혀서 율사로 나가든지, 또 행정을 익혀 가람수호를 하는 주지로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 같은 생각에는 은사스님들의 영향이 크다. 강사로 키워 준 고봉스님, 은사스님이신 동산스님, 율사로 만들어준 석암스님을 통해 스님은 삼학을 두루 갖추어야 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은사이신 동산스님께는 일심으로 참선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 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휴체이탈, 쿤달리니, 미진과 백회 차크라개발, 에너지이지,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련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본체, 녹색광안경, 헤드폰, 사용책자등/미국 마이크로펄사)

* 오라진동부선 (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OEM)
* 광인경(빨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 /미국 마이크로펄사)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펄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션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톤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전화주시면 (뇌파연구와 채널링) 소책자와 카다로그를 무승해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16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겨울반)
2.교육장소	동산법당 (동산불교회관)
3.개강일시	2001년 12월 5일(수요일) 오후 7시
4.교 과 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 학 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

동 산 반 야 회

제10차 3333배 특별기도 정진

대신심 환희심으로 호흡해 맞춰 완벽하게!

절을 몇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이며 절을 500만배 성만한 수행자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괄적으로 바르고 공경스럽게 예경하며 소참법문을 들으며 10회로 나누어 매회마다 부처님전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기도 올리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마음 속 재앙을 병고액난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무량대복을 짓고 덕을 쌓고 큰 소원 한가지를 바른 수행의 신심으로 부처님 크신 은혜 가피를 이루어 봅시다

◆ 입 재 : 11월 24일 토요일 저녁 9시 ~ 일요일 아침 7시
(절하는 법과 수행교육은 7시 ~ 9시)
◆ 준비물 : 공양미, 두꺼운 기도포, 두꺼운 면양말, 면T 2매

※ 단 한번 동참으로 당뇨병, 회병, 상기병, 불면증이 치유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병은 음식 가릴것도 없고 약도 필요 없고 호흡에 맞춰 절 하시면 짧은 시일 내에 극복됩니다. 일반 다이어트와는 달리 몸속 깊은 곳의 노폐물이 먼저 빠져나오며 뱃살 빼는데 절수행 맡큼 좋은게 없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7일 수행체험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염불, 독경, 참선 행선, 와선, 사경, 도인체조의 테크닉을 체득하며 기초수행을 돈독히 하며 부처님을 공경하고 찬탄하며 크신 은혜에 감사함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신심을 철저히 가꾸게 됩니다.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금강지혜보궁 불사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031)771-7745 · 7038 · 6736 (Fax겸용)

⊙버 스 :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요
⊙자가용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면 → 대명 (비발디 파크 스키장 이정표) → 대명스크장 → 소리산

수행전문사이트
http://cafe.daum.net/sorisan/
(다음넷 카페 : 소리산 참선 캠프 클릭)

금강경 역해

금강경 산스끄리뜨 원전 분석 및 주해



각묵스님 역해
신국판 양장본/473쪽
값18,000원

부처님께서 고구정녕히 말씀하신 메시지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금강경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문본인 구마라집 역본이 가장 널리 읽혀왔는지라 지금까지는 구마라집의 안목에 갇혀 금강경을 접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세계 최초의 산스끄리뜨 원문, 구마라집 역본, 현장 역본, 번역, 대역, 주해로 이루어져 있다. 원문을 철저히 분석하고 산스끄리뜨 술어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마라집 역본과 현장 역본을 산스끄리뜨 원전과 비교해 가면서 대역하고, 당대의 시대상황에 이르기까지 명쾌하게 설명해 놓았다.

불광출판부
☎ 02-420-3200
서울 송파구 석촌동 160-1